보도참고자료 ('23.7.3)

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.

< 2. 일본 측 최근 동향 >

□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(NRA)는 지난주 금요일인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 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

○ NRA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

○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,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고,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□ 한편,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,

○ 이 사무소에서는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○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행하는 구체적 임무는, 향후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 3. 언론 보도 사실관계 정정 >

* 오염수 대변인 된 한국...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방패 뚫렸다(한겨레TV, 7.1)

□ 지난주 브리핑에서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.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, 주말 간 한 언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들을 엮은 보도가 있어, 해당 사실관계를 바로잡고, 재차 정확한 팩트체크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.

①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기로 방침 결정했다는 내용

□ 먼저, 해당 보도에서는 "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"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, 이와 달리,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고,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해왔으며,

○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.

② 우리 정부가 해양 방출이 유일한 답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내용

□ 그리고, 해당 보도는 우리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, 기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,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'21.4월에 최종결정했고,

○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.

③ IAEA가 특정 처리방안을 일본에 권고 및 재촉했다는 내용

□ 또한, 이 보도는, ❶ IAEA가 '18년에 일본 측에 5가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재촉했고, ❷ '20년에는 해양방출과 수증기 방출의 두 가지 방안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,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❶ 먼저, IAEA가 '1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*에 5가지 처리방안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, 이는 일본 측이 제시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* IAEA International Peer Review Mission on Mid-and-Long-Term Roadmap Towards the Decommissioning of TEPCO's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Unit 1-4

○ 보도에서처럼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❷ 다음으로, IAEA는 일본 경산성 산하 'ALPS 소위원회'가 5가지 처리방안 중 해양·수증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뿐이므로,

○ IAEA가 직접 해양·수증기 방출을 추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.

④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논리가 약화된다는 내용

□ 이 보도는 결론적으로,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데,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,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

○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,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입니다.

○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 더 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합니다.

⑤ 보도 시, 사실관계 확인 당부

□ 일일 브리핑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공개되어 있으며, 기자분들께서는 이브리핑(e-brief)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○ 부디, 브리핑 문안과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국민들께 잘못된 사실관계로 혼동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드립니다.

보도참고자료 ('23.7.3)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전재우 기획조정실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7월 3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(금년 누적, 4,743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○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다랑어 4건, 강도다리 4건, 오징어 3건, 황다랑어 3건, 조피볼락 2건 등이었습니다.

○ 지난 6월26일부터 30일까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75건(금년 누적, 2,545건)입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□ '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'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전남 해남군 소재 양식장의 넙치 1건과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의 조피볼락 1건을 조사한 결과, 적합이었습니다.

○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88건을 선정하였고, 81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○ 현재 7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, 알려드리겠습니다.

□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
○ 6월 29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0건(금년 누적, 2,869건)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
□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
○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
○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, 이바라키현,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2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< 3. 개별 설명사항 >

□ 다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산물 할인행사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○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주요 양식 수산물을 최대 50%까지 할인하는 「여름철 보양 수산물 특별전」을 개최합니다.

○ 이번 행사는 무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,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원기를 보충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을 준비했습니다.

○ 7월의 수산물로 선정된 우럭, 국민 횟감 광어, 전복 등 고단백 수산물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.

○ 이마트, 홈플러스 등 14개 업체, 1,700여개 점포와 쿠팡, 마켓컬리 등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이번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만큼,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'대한민국 수산대전'을 검색하시면,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, 우리 수산물, 우리 식탁은 안전합니다.

○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셔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